

줄리안 오피 작 'New York Couple 6·5'



줄리안 오피·김창열·백남준... 원화·에디션 판화 등 40여점 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걷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걷는 모습은 마치 풍부한 색깔을 담고 있는 팔레트 같아요." (줄리안 오피)

세계적인 작가 줄리안 오피의 작품들을 만나는 광주신세계갤러리 전시장 벽면에 적힌 글귀다. 이 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바빠 걷는 작품 속 현대인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사진과 비디오 영상에서 얻은 이미지를 컴퓨터로 단순화 시켜 단 몇 개의 선과 모양만으로 완성한 그의 작품 속 경쾌한 인물들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팝 아이콘이다.

줄리안 오피, 알렉스 카츠, 데이비드 호크니, 야요이 쿠사마 등 해외 작가를 비롯해 김창열·박서보·백남준·이우환·전경자 등 광주에서 만나기 어려운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9일까지 'Limited Art Fair: 아트 컬렉션의 시작'을 통해 대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 나온 작품들은 원화와 에디션 판화 40여점이다. 최근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획된 전시로, 컬렉션의 의미 뿐 아니라 요즘 국내외에서 가장 '핫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예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에는 지난 1월 타계 후 홍콩 크리스티 경매 등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물방울 작가' 김창열 화백의 대형 원화 작품을 비롯

세계적 거장들 '아트 컬렉션의 시작'

해 섬세한 기술을 이용, 원화의 작은 디테일까지 옮긴 작품으로 저작권자의 인증하에 한정 수량만 제작된 에디션 판화들이 나왔다.

전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국내 전시마다 화제를 일으킨 알렉스 카츠의 꽃그림 판화 연작이다. 트레이드마크인 인물 초상화 중 '자화상'과 함께 전시된 꽃 시리즈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진다. 화면을 가득 메운 커다란 꽃들의 다양한 색깔과 대담한 구도가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다.

줄리안 오피의 작품으로는 작품당 단 20점의 에

디션만이 제작돼 최소 5000여 점의 '올드 스트리트' 연작을 비롯해 '뉴욕 커플' (2019) 등을 만날 수 있다.

쿠사마 야요이의 몽환적이면서도 화사한 작품과 생존 화가 중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가'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미디어아티스트 창시자 백남준의 다채로운 설치 작품도 눈길을 끈다.

한국 미술 시장의 확장고 세계화를 이끌며 전 세계 컬렉터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단색화 대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박서보 작가의 'Ecriture Series 4'는 묵직한 단색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이우환·정성화·하종현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고흥 출신으로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리는 전경자 화백의 '노오란 산책길' 등도 만날 수 있다.

한편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난 3월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숍도 운영중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알렉스 카츠 작 'Red Dogwood 2', 'Peonies', 'Purple Tulips 2'

여순사건의 아픔을 달래다

창작발레 '애기섬'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현대의 비극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모티브로 한 창작발레가 무대에 펼쳐진다. 창작발레 '애기섬' (사진)이 오는 1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시민들을 만난다. 광주문화재단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두 번째 공연으로 나라발레씨어터의 창작품이다.

작품은 해방 이후 극도로 불안한 좌와 우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역사 소용돌이에 휘말린 엇갈린 주인공들의 극한의 대립과 갈등이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마침내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용서와 치유

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인 '애기섬'은 지난 1950년 국가권력이 여수의 국민보도연맹 가입자인 민간인 100여 명을 집단 수장시킨 슬픈 역사를 품은 장소다. 당초 이 작품은 지난 1991년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휘말리면서 스크린에 상영되지 못한 장영필 감독의 영화 '애기섬'을 모티브로 한다.

김하정 감독의 안무에 국립발레단 주역 출신의 발레리노 윤전일, 현대무용계 스타로 손꼽히는 안남근, 발레리나 염하정 등이 주역을 맡아 포인트 안무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친다.

한편 나라발레씨어터는 발레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발족된 단체로 창작발레 '두리의 비상'을 비롯, '흑두루미의 꿈', '운동주 100년의 기억' 등 지역 소재의 작품을 창작했다. 문의 062-670-79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지혜 '플루트 파노라마'

1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피아졸라, 프랑크의 곡을 플루트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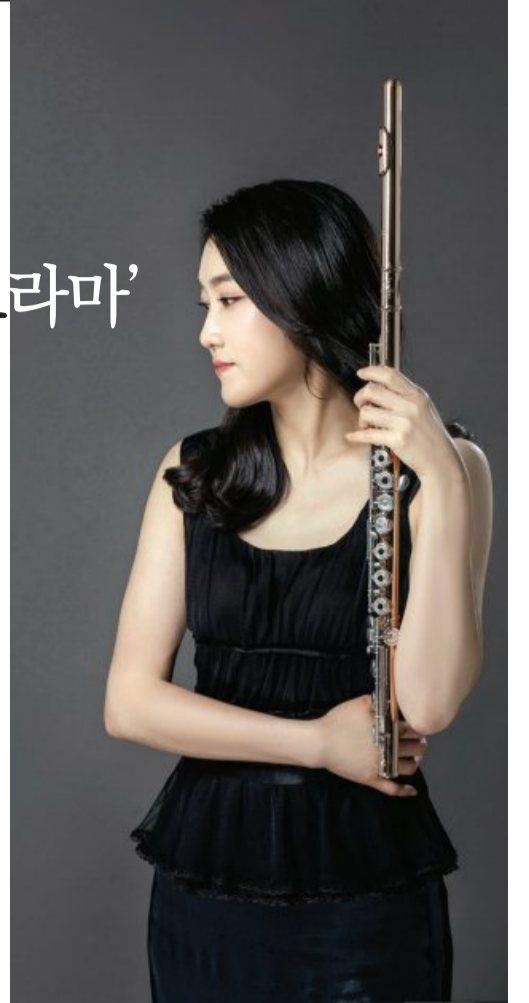
최지혜(사진) 플루트 독주회 '플루트 파노라마'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서울 윈드 앙상블, 앙상블 시나위 등과의 협연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최 씨는 이날 공연에서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롭게 시도해 다양한 플루트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19세기 초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합부르크 소나타'로 시작해 19세기 말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꽃 피우는 프랑크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그리고 20세기 전 세계에 탱고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소개한 피아졸라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탱고의 역사'를 들려준다. 또, 21세기 현대 주법과 세련된 리듬으로 이루어진 클락의 '플루트 독주를 위한 중 류브' 까지 다채롭고 색다른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최 씨는 이날 해설자로도 변신해 작품소개를 비롯해 연주와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 등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광주예고, 이화여대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연주자 과정을 밟았다. 목포대, 광주대 외래교수를 거쳐 현재 조선대에 출강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 협연자로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이철민은 광주예고, 한예중 예비학교와 예술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광주시향, 부산시향 등과 협연했다. 현재 세종대, 계원예고에 출강중이다. 전석 초대. 사전 예약 필수. 문의 010-8602-136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수진·김애경 곡으로 만나는 우리가곡부르기

11일 농성동 라이온스회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40회 공연이 시인 박수진, 작곡가 김애경 부부의 곡으로 채워진다. 11일 오후 3시 농성동 라이온스회관 4층 대회 의실.

부부는 동요뿐만 아니라 약 100여 곡의 가곡을 함께 만들었으며 왕성한 활동으로 가곡애호가들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은 심옥호·김종석·이길호·서애숙·조성석·김종래·박선용 등의 회원들이 '나는 눈 하나 날개 하나 비익조의 노래'를 주제로 '사랑의 노래', '나

의 별에 이르는 길', '양수리 연가' 등을 선사한다. 또, '잠자리', '그네뛰기', '사랑초' 등도 부른다. 손정윤·손혁준 남매는 '잠자리'와 '그네뛰기'를 들려주며, 늘푸른중창단이 특별출연해 동요 메들리를 선보인다.

박수진 시인은 이날 자신의 시 '오케스트라 지휘자 2'를 직접 낭송한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오는 10월 '나의 애국가'를 주제로 공연을 펼치며, 11월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수인 작곡가를 추모하며 이 작곡가의 곡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문의 010-2694-4592.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40회 공연이 11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이온스회관에서 열린다.

순천글로벌웹툰캠퍼스 '원데이 클래스' 진행

요즘 인기가 높은 웹툰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순천글로벌웹툰캠퍼스는 '웹툰 원데이 클래스-너도나도 원데이 스케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재 웹툰 작가가 진행하는 '웹툰 원데이 클래스'는 펜과 종이만 있으면 쉽게 그릴 수 있는 라이브 드로잉 수업으로, 인물과 배경 스케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강좌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을 주제로 주변 사물을 그려본다. '충장'과 '아이슈타인 브릿지'를 주제로 진행되

는 이번 클래스의 강사는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입주작가이자 문화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365 대표 김민준 작가다.

교육은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6회 이루어진다. 웹툰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회당 1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순천글로벌웹툰캠퍼스 홈페이지 신청. 문의 061-751-029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